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2월 2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4.(목)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2. 23.(수)	담당부서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과장	권혜진 과장 (044-203-4330) 박일훈 과장 (044-203-7404)	담 당 자	박주현 서기관 (044-203-4331)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 제호민 사무관(044-202-7413)

산업부 · 고용부 장관, 군산시 조선산업 현장 방문
–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는 **2월 24일(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현대중공업, 전라북도, 군산시**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24(목) 10:30~11: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 **참석자** : 산업부·고용부장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약 50명
- **행사내용** : ① 비전 및 향후 계획 발표(현대중공업, 전라북도)
  ②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전라북도, 군산시)

< 협약체결 배경 및 주요내용 >

□ **현대중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6년 수주절벽 등 조선업 장기불황이 이어지자,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17.7월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다.

○ 그러나 최근 **세계 조선산업 시황 회복*** 국면에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3.1월부터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 세계발주량(만CGT) : ('16) 1,402 → ('19) 3,063 → ('20) 2,429 → ('21) 4,821(전년比98%↑)
** 국내수주량(만CGT) : ('16) 224 → ('19) 999 → ('20) 823 → ('21) 1,749(전년比113%↑)

○ **정부(산업부·고용부)와 지자체(전북도·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재가동 결정을 환영하고, **'23.1월 재가동 시점까지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 협약서 주요내용 >

- (**현대중공업**) **'23.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 및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
- (**산업부, 고용부, 전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인력확보 등을 적극 지원**

□ 이날 협약식에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전북도·군산시는 '21년초부터 **군산조선소 내 야드 및 시설을 활용하여 협력업체가 블록을 제작**하는 재가동 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던 중,

- **'21년 수주량의 리드타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시설보수·개선 기간**(약 1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시설정비에 착수하고 '23.1월부터 군산조선소에서 블록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 '21년 수주량 증가에 따라 '22년말~'23년초 선박용 블록수요 증가 전망

○ 현대중공업은 **연간 10만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향후 수주동향에 따라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되는 블록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LNG·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북도는 '23.1월 예정된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고용보조금, 협력업체 자금지원, 복지 후생, 노선버스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재가동 후 3년간 해상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그간의 정부 노력 >

□ 군산시는 '17.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지 외에도 '18.2월 GM공장 폐쇄 등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정부는 **국가 주력산업**이기도 한 조선·자동차 산업의 **핵심 생태계 및 인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18.4~'22.4) 및 고용위기지역('18.4~'22.12)**으로 **지정하고 수차례 연장***해왔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차례, 고용위기지역 4차례 연장

-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위기산업 지원**, 해상풍력·레져 등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단지·도로·항만 등 **지역경제 기반 보완**, **숙련인력 유지 및 활용**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 군산지역 지원사업 현황('18.4~) >

분야	지원사업	총예산
위기산업 지원	·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 등 총 31개 사업	6,100억원
신산업 발굴·육성	· 군산형 일자리(전기차 클러스터) 추진사업 등 총 15개 사업	7,108억원
지역경제 기반 보완 등	· 새만금 남북도로·동서도로 건설사업 등 총 30개 사업	16,298억원
숙련인력 유지 및 활용	·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	483억원
합계	· 총 83개 사업	29,989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및 근로자 직업훈련 비용 등을 확대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애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수립('17.7)하고 **조선-해운 상생협력 강화,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군산·전북지역의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힘써왔고,

- 최근 일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선인력의 복귀·활용**과 **신규인력 취업지원** 등 **조선업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했다.

○ 그 결과, 현재 군산 지역에는 **상당수의 조선 기자재업체들이 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 이들 **기자재 업체들과 현대중공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 조선기자재업체 및 고용인원 수 : ('16) 62개사 1,052명 → ('21) 56개사 630명

<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K-조선 재도약 >

□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K-조선 재도약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 무엇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추가적인 생산공간이 확보되면 선박 인도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국내 조선업계 **수주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수주호조로 건조공간이 채워짐에 따라 '22.1월 대형조선소의 수주물량(27척)의 절반이상(16척)은 '25년 이후 인도될 예정

○ 또한, 향후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LNG·LPG 선박용 블록 전문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국내 조선산업의 **친환경선박 분야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세계 친환경선박 발주량 중 국내 수주비중 : ('19) 57% → ('20) 62% → ('21) 64%

<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전북 지역경제 활력 회복 >

□ 한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군산·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전 **군산·전북 지역경제에서 조선산업이 차지하던 비중***이 다른 지역 대비 월등하게 높았던 만큼,

* 제조업 생산액 대비 조선업 비중 : 전국 2.4%('19), 전북 3.1%('16), 군산 8.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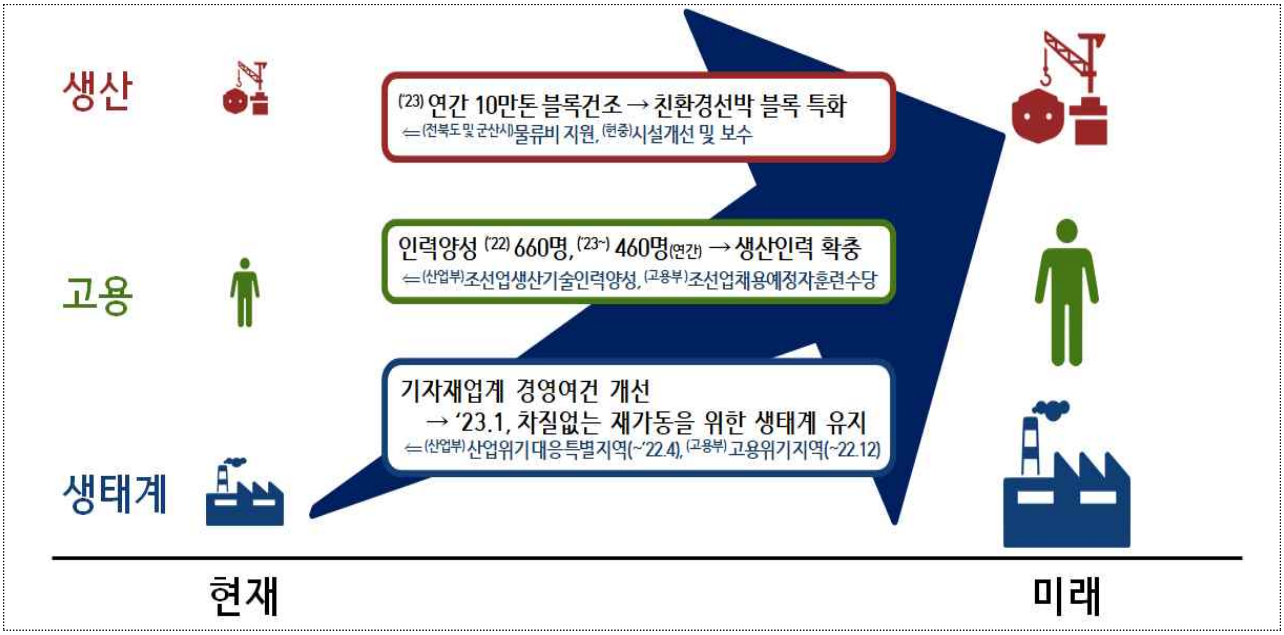
- 재가동시 **협력업체·기자재업체 일감확보, 경영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따라 군산·전북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 중인 바,

* 참여기업 :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연계되면 **군산·전북지역은 친환경 선박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 >



< K-조선 재도약을 위한 조선산업 인력양성 확대 >

□ 한편, 우리 조선산업은 **친환경·고부가선박***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20년 4분기(510만CGT)부터 수주실적**이 개선되어 **'21년 1,749만 CGT를 수주**하며 '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 '21년 수주실적(글로벌 점유율) : (친환경船)1,088만CGT(63.6%), (고부가船)1,252만CGT(64.5%)

○ 이에 따라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인력수요, 특히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수급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조선 재도약 전략('21.9)」**을 수립하면서 **총 8,000여명의 조선업 생산 인력양성 계획**('21~'22)을 포함했다.

○ **'21년 추경 확보**(약 37억원)등을 통해 **총 4,507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2,644명이 단기간에 채용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 '22년에도 **약 4,000여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산업부)과 **조선업 채용예정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고용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 **군산조선소를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필요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부·고용부 조선업 생산분야 인력지원 교육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현재		합계('21~'22)	
	교육	취업	교육	취업	교육	취업	교육	취업
산업부	2,312	1,036	**3,484**	**2,168**	3,160	-	6,644	-
조선업생산기술	2,103	885	3,269	2,003	3,000	-	6,269	-
LNG특화생산설계	209	151	215	165	160	-	275	-
고용부	993	562	**1,023**	**476**	950	-	1,973	-
합계	3,305	1,598	**4,507**	**2,644**	4,110	-	8,617	-

* '22년 교육인원은 교육·훈련 지원사업 예상교육인원

○ 이외에도, **'22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사업**(고용부)으로 선체의장·조립, 특수용접 등 **조선업 관련 7개 직종 2,800여명**의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21년) 51개 민간훈련기관, 2,221명, ('22년 계획) 43개 민간훈련기관, 2,800여명

< 정책 메시지 >

□ **문승욱 장관과 안경덕 장관**은 **K-조선 재도약**과 **군산·전북지역 조선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 K-조선이 **노동집약·중후장대 산업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①핵심기술·기자재 개발 및 실증, ②생산인력의 적시 수급, ③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 동시에 군산조선소가 '23.1월 차질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원 등**을 통해 향후 군산·전북지역에 **조선업 생산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협력 협약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 044-203-4332)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제호민 사무관(044-202-7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협력 협약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주)(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력 및 정책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중공업(주)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 및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인력확보 등의 제반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3조(실무협의) 협약 당사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 사항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장관 문승욱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천·년·의·비·상 전라북도

지사 송하진

군산시

시장 강임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